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위한 오찬사

존경하는 요란 페르손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내일은 스웨덴과 한국이 수교한 지 4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기에 우리나라를 세번째 방문해 주신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웨덴은 우리에게 고마운 친구의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단을 파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2001년 5월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해서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셨습니다. 각하와 스웨덴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각하,

나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교육, 환경, 양성평등, 복지 등의 과제를 토의할 때

스웨덴을 그 예로 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모범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스웨덴의 미래혁신 역량은 국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각하께서는 강력한 개혁의지로 1990년대 중반 스웨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도 매우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나아가 국제평화, 군축, 개도국 원조, 인권, 지역협력과 같은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도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스웨덴과 국제사회의 발전에 더욱 크게 공헌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조금 전 끝난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서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여개의 스웨덴 기업들이 IT, 자동차, 환경, 의약, 통신, 운송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의 실질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두 나라는 IT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간 기술 교류·협력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광통신,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친구 스웨덴 정부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

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페르손 총리 각하의 건강과 스웨덴의 번영, 그리고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의와 협력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